

진주 공립 전문과학관 _ 2022. 8

Mysterious Cube

설계자 _ Architect. 이규상 · 장기욱 _ Lee, Kusang · Zhang, Kiuck
(주)보이드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_ VOID architects



발주자 진주시 | 설계팀 금태연, 남정훈 |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446-1번지 외 5필지 | 주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 |
대지면적 7,890㎡ | 건축면적 1,972.85㎡ | 연면적 5,947.58㎡ | 건폐율 25.00% | 용적률 75.54% |
규모 B1F ~ 4F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마감 주요 외장재_접합유리(무작위 수직선 에칭처리)



공립과학관은 과학교육의 중심 기관으로서 기술 발전의 신화화를 통해 응용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아무리 도발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더라도, 문화전 시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서 과학관의 근간을 훼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항공우주 과학이 보여주는 판타지는 때로 그 학문으로서의 실용성을 잊게 만들곤 한다. 이를 다루는 공립과학관이 진주에 새롭게 생겨나는 것을 상상해 보았을 때, 블랙박스들로 이뤄진 단절된 공간적 경험을 피하고자 했다. 새로움의 복합적인 중첩을 통해 놀라움과 사회적 소통을 유발했던 '호기심의 방'이라는 과학관의

원형을 다시 고민했다. 무아레 현상을 이용한 유동적인 파사드로 이뤄진 큐브는, 걸어서 볼 때에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진주의 역사를 담은 철길 옆의 감추어진 출입구를 따라 들어간 큐브의 내부에서는 무한한 공간이 관찰된다. 미디어아트 기술과 결합한 파사드의 내면은 물리적 제한을 넘을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며, 다양한 높이를 가지고 부유하는 내부 볼륨은 전시 기획자를 지면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아이디어의 틀이 된다. 하나의 단일 공간 속에 다양한 전시물을 다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과 체험공간이 흠뻑려져 있을 것이다.

